티베트대장경역경원 티베트어 무료 강의

6월 29일~7월 27일까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은 여름방학을 맞아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티벳어 무료 강의를 실시한다.

티베트 불교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어학 강의는 동국대 티베트대장경역경원 이지현 전임연구원이 초급 티베트어 회화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교육은 6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백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은 지난 2009년에 설립돼 티베트대장경 역경사업을 위한 티베트어 한글표기안, 티베트어 교재 발간 및 석학들의 특강, 국제학술대회 개최, 번역서 출간 등 다양한 사업과 관련 연구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054)770-2893 신성민 기자

화계사 소장 성보 8점 서울 유형문화재 된다

9일 지정예고 공고

서울시는 6월 9일 화계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과 아미타괘불도 등 화계사 소장 성보문화재 8건을 비롯해 도안사 은선묘아미타삼존도 등을 시유형문화재로 지정예고했다. 이와 함께 호림박물관 소장 지장시왕도 등 4건을 문화재청에 보물로 지정신청한다고 밝혔다. 화계사는 1522년(중종 17) 창건 후 광해군 때 화재로 소실됐다가 1866년(고종 3) 흥선대원군의 시주로 보수 및 중창됐다.

목조관음보살좌상은 가부좌를 하고 있으며,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다. 복장유물로 1634년 용복사 간행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5 1책, 1635년 〈범망경노사나불성보살시지계품〉 3책과 1635년 희용사 간행 〈염불작법〉 5책 등이 나와 17세기 불상으로 추정된다. 화계사 아미타괘불도는 현종의 모친인 대왕대비 조씨와 왕대비 홍씨, 상궁들이 대거 참여해 발원해서 조성됐다. 이와 함께 오여래도와 인로왕보살도, 괘불함도 일괄 지정예고 됐다.

한편, 30일 이상 서울시보에 공고된 지정예고 문화재는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된다. 신성민 기자



김희경 소장과 최선일 위원이 6월 18일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학술대회서 공개한 고성 옥천사 도난 나한상들. 이중 4 · 5번 나한상은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1 · 2 · 3번 나한상의 모습은 처음 확인됐다.

도난 옥천사 나한상 진본 사진 최초 공개

김희경 · 최선일, 동북아불교미술硏 학술대회서

도난된 나한상 사진 5점 공개
미확인만 3점… 백서에도 없어
도난유물 모두 손에 지물 '특징'
"유통 · 판매 용이한 작품들 절도"

옥천사 나한상 제작 '색난' 추정
정수사 · 능가사 색난 작품과 유사
원할한 연구위해 옥천사와 MOU

도난된 옥천사 나한상의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있는 사진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도난 문화재 환수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김희경 한국고미술감정연구소장,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6월 18일 열린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학술대회에서 도난 이전에 촬영된 고성 옥천사 나한전 나한상 5점의 사진을 공개했다.

현재 나한전 16나한상은 1988년 7구가 도난됐다. 다행히 이중 2점은 2014년 은닉한 사립박물관장을 체포하고 해당 유물을 환수 조치했다. 현재는 5점의 나한상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김희경 소장과 최선일 위원은 '고성 옥천사 목조나한상의 작가와 제작시기 추론'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현재 도난 중인 5점의 사진을 학계에 최초로 공개했다. 이들 사진은 안귀숙 박사가 1980년대 연구를 위해 전국을 다니며 촬영한 것으로, 현재까지 옥천사 나한상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다. 특히 이중 3점은 조계종이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도 없는 사진으로 그 중요성이 높게 평가된다.

이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최 위원은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를 살펴보면 총 6구의 도난상이 소개되었는데, 그 가운데 3구의 나한상은 현재 나한전에 봉안되어 있는 유물들"이라며 "아직 나한상 5점이 옥천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들이 백서 · DB에 반영돼야 은닉 · 유통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 공개되면서 도난 나한상의 특징도 분석이 가능해졌다. 최 위원은 "도난 나한상은 모두 손에 지물을 들고 있다"면서 "절도범들은 나한상 중 작품성이 뛰어나 유통이 용이한 유물을 훔쳐갔다" 또한, 김 소장과 최 위원은 옥천사 나한상을 조성했던 조각승으로 색난 스님이 제작한 것이라 주장했다.

색난 스님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까지 고흥 능가사에 거주하면서 호남과 영남에 상당히 많은 불상을 제작한 작가이다. 특히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에 있어서 색난 스님이 가지는 명성과 위치는 크다. 조선 후기 나한상 중 현재까지 제작자와 연대가 확인된 것은 20여 건이지만, 이중 6점이 색난 스님과 그 계보에 의해 만들어졌다.

두 발제자는 우선적으로 색난이 제작한 강진 정수사(1684), 고흥 능가사(1685), 구례 천은사(1693), 해남 대흥사(1701) 나한상과 옥천사 나한상을 비교분석했다.

이를 통해 △장방형 얼굴에 윗부분을 넓게 해 역사다리 꼴을 보이는 것 △원두령 내의를 입은 나한상 비중이 높은 것 △색난 작 나한상 특유의 손가락 표현 △대좌에 걸친 발의 모습 등에 유사성이 확인된다고 발제자들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은 "이런 양식들은 다른 계보를 가진 나한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옥천사 나한상은 색난이나 그 계보에 의해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시기적으로는 1680년대 나한상보다는 1693년 천은사, 1701년 대흥사 나한상과 유사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조태건(불교문화재연구소)의 '고성 옥천사 명부전 불상과 조각승 경옥' △김요정(충북대)의 '옥천사 목조불패 연구-재질과 제작연대를 중심으로' △김정원(불교문화재연구소)의 '옥천사 조선후기 석조부도 연구' 등이 발표됐다.

한편,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 옥천사는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지속적인 성보문화재 연구와 도난문화재 환수에 상호지원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종단, 신도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라"

이명호 강사, 25일 '저출가시대' 주제 연찬회서

승가, 재가를 객체로만 이해
불자로서 정체성 확립 필요

"조계종단에서 신도는 입교절차를 이수하고 조계종 종지를 신수봉행하는 사람이다. 이때 종지는 직지인심 · 견성성불 · 전법도생으로 언급된다. 하지만 신도 기본교육 목적은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는 불자로서의 자세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불자를 불자로 드러나게 하는 생활양식에 대한 고민이 없다."

이명호 중앙승가대 강사는 6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저출가 시대와 한국불교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불광연구원 · 조계종 포교연구실 공동학술연찬회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재가자의 위상과 역할 변화'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명호 강사는 "재가불자의 역할을 논하기에 앞서 어떤 재가불자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 '체화된다' '내면화된다'라는 뜻은 가치가 생활로 현현한다는 의미"라며 "불교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 법향은 생활을 통해 드러나는 것으로 이런 맥락에서 사찰과 신도 개념도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재가자를 출가자와의 관계 내에서만 이해하고, 재가자를 객체로 인식하는 한국불교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 강사는 "최근 모든 종교에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참여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신분적 차이가 엄격한 불교에서도 평신도 참여는 증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출가자와 재가자의 구분은 존재론적이다. 삭발염의로 대표되는 외형적 차이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기에 그 관계는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경전에는 재시자 · 이타행 실천자 · 선정수행자 · 설법자 · 논사 · 포교사 등으로 재가불자의 위상과 역할이 요약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강사는 현대사회 변화에 따라 불교신도의 정체성에 대한 규정이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조직화라는 관점에서 불교신도들을 등록과 관리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 신도교육도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단적으로 신도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면서 "어떤 삶이 불교적인지, 붓다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은 새로운 사회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연찬회에서는 △출가자 감소의 대내외적 원인과 대책(박수호 덕성여대 연구교수) △저출가에 따른 승가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저출가시대의 전법 전략과 비전(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등의 글이 발표됐다.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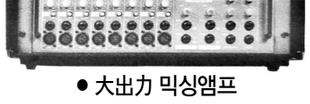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